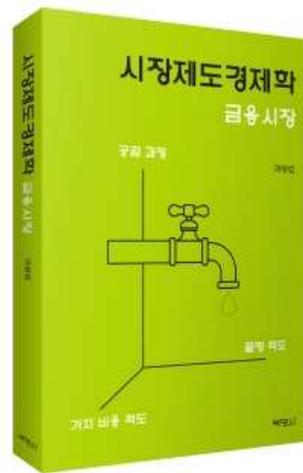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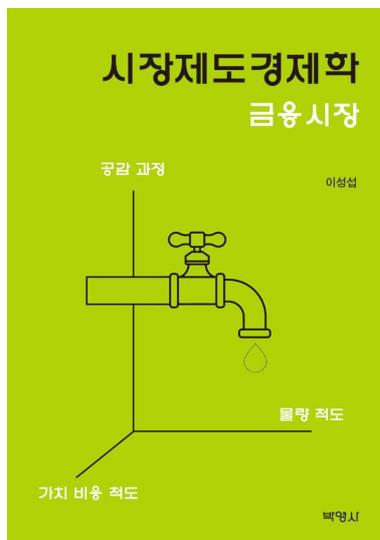


이성섭 교수님, '시장제도 경제학: 금융시장' 출간

본 학회 회원이신 이성섭(숭실대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) 교수님께서 저술한 『**시장제도경제학: 금융시장**』(박영사)이 출간되었다. 경제학자들이 늘 시장을 가리키고 그곳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‘**시장이 무엇인가?, 어떻게 만들어지고, 또 어떻게 해체되는가?**’에 대한 분석적 내용을 궁구한 책이나 논문이 없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. 이 책의 출간으로 경제학은 ‘**시장제도경제학**’과 ‘**시장제도를 분석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제학**’의 둘로 구분됨을 본서가 밝히고 있다.



또한 최근(2020년 8월 14일) **Harvard대 경제학과 Ben Golub 교수**가 이성섭 교수님의 website를 보고 이성섭 교수님께 보내 온 **이메일의 일부 내용**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. Golub 교수는 이성섭 교수님의 분석틀인 “관계교환-공감과정”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. Golub 교수는 최근 경제학의 뜨거운(hot) 주제인 “relational exchange”(관계적 교환: network, homophily 등)의 대가이다. Golub 교수의 ‘relational exchange’는 합리적 의사결정이론의 접근이고, 이성섭 교수님의 ‘relation exchange’는 제한적 합리성(공감행동)의 접근이다.

“귀하가 언급한 신뢰와 인간관계의 네트워크가 경제의 운영에 근본적인 요소이며, 왜 그리고 어떻게 경제가 작동하는 지를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(Benjamin Golub 외 2인, 2020)가 논문(“Supply network formation and fragility”)에서 설명하는 변수 x 는 귀하의 웹사이트 (<https://nyxabartar.wixsite.com/sungsuprhee/about-relation-exchange>)에서 소개된 ‘관계교환’ 개념의 설명력에 아주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”.